

Volunteer



필리핀 까반나투안시의 현지인처럼 살아가기

거침없이 스스로를 방황 속에 내던지는
즐거운 길 잃기. 사람들과의 끈끈한 관계
속에 피어나는 행복의 지도. 우리가
상상하고 만들어가는 새로운 세계의
나침반이 여기, 필리핀에 있다. 아시아의
좋은 친구들, 라온아띠가 되어
이방인이 아닌 현지인처럼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들의 생활을 이야기한다.

필리핀 = 라온아띠3기(고명보, 권오란, 류나은, 박해린, 이영림)



- 01 수업에 참석하는 아이들의 미소
- 02 아이들이 그린 협동화 앞에서 라온아띠3기 필리핀팀
- 03 Valle Cruz 마을의 한 상점 앞에서 아이들과 함께 여유로운 오후
- 04 마을 공동 프로젝트를 구상 중인 어머니들과 회의 모습
- 05 한복입고 부채춤을 췄던 마을 잔치
- 06 미술 수업의 작품을 든 아이들
- 07 트라이씨클을 운행하는 거리
- 08 봉사단 누나와 함께 브이

PHILIPPINES

'라온아띠' 로 살아가는 다섯명의 대학생

오늘 아침도 뜨겁다. 아침 8시만 되어도 뜨거운 태양이 몸을 데우는 이곳. 여기는 필리핀에서 가장 뜨거운 도시 까반나투안이다. 성격과 개성이 모두 다른 대학생 다섯 명이 태양보다 뜨거운 다섯 달을 '라온아띠-아시아의 즐거운 친구'라는 이름으로 살아내고 있다. 관광도시도 아니고, 유학생도 적은 이곳. 꽤 큰 도시라고는 하지만 높은 빌딩 하나 없고 사방으로 눈발이 드넓게 펼쳐져 있는 이곳은 누에바이시아 주의 주도로서 필리핀 전역에서 쌀 생산량이 가장 높은 농촌도시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곳에서 집 앞 슈퍼를 나갈 때도 화장을 해야 하는 스타 아닌 스타 대우를 받고 있다. 팀원 중 한 명은 꽃보다 남자의 금잔디가 되었고 다른 한 명은 선덕여왕 대우를 받고 있을 정도이다.) 우리는 이 도심 외부에 있는 발레 크루즈라는 마을에서 지속 가능한 지역공동체와 아시아 커뮤니티를 상상하며 여러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Valle Cruz, 우리 마을

요즘 우리는 매일 아침 8시부터 시작되는 Summer School을 진행하기 위해 트라이씨클을 타고 발레 크루즈로 이동한다. 이 마을은 대부분 극빈층으로 이루어진 도심 내 빈민지역으로 쓰레기 산이 속해있는 곳이다. 푸석해 보이는 시멘트벽의 집들이 어깨를 맞대고 다닥다닥 붙어있는마을. 그 앞을 화려하게 메우고 있는 다양한 색의 꽃과 나무. 매일 아침 우리가 타고 있는 트라이씨클을 따라 달려오며 우리의 이름을 부르는 아이들과 지나는 우리를 향해 늘 손을 흔들어 주는 다정한 사람들이 있는 곳, 우리마을이다.

Summer School 프로젝트

Summer School 프로그램은 지역의 초등학교를 대여하여 하루 3시간, 한 달 동안 진행되는 프로그램으로 빈민지역 내 아이들이 새로운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나아가서는 지역 공동체 만들기를 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우리가 모든 프로그램을 스스로 기획하고 실행하기 때문에 세세한 부분까지 철저한 준비를 거쳐야 한다. 뻘뻘한 하루 일과가 끝난 저녁에도 다음 날 수업을 준비하고 수업 재료를 만드느라 밤을 지새우기도 한다. 몸은 피곤하지만 수업에 참여하는 아이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두근거려 잠을 청할 수가 없다. 우리는 아이들이 상상하여 직접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하는 미술시간을 많이 가진다. 상상 속 우리 마을 지도 그리기, 나의 미래 모습 그리기를 할 때면 아이들은 '언니, 저는 간호사가 되어서 우리 마을의 아픈 사람들을 돕고 싶어요', '저는 커서 언니, 오빠들처럼 라온아띠의 새 멤버가 되고 싶어요!' 하며 새로운 꿈을 꾸기 시작한다. 자신의 미래를 상상하고 그 미래가 보다 많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라 말하는 아이들을 통해 지금 우리, 행복하다.

거기 서 있는 당신! 의심하지 말고 새로운 세계를 만드는 데 당신의 젊음을 소비하라!

길가에 피어있는 꽃들을 엮어 주면서 우리에게 사랑한다고 외치는 아이들. 달콤한 바나나를 우리에게 안겨주고, 지속가능한 마을을 위한 공동체 회의에서 구체적인 지역 사업(바느질 사업과 빵 굽기 프로젝트를)을 구상하는 어머니들. 이들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 청춘이 가진 것이 상상력과 연대감, 그리고 관계를 통해 서로를 치유할 수 있다고 다시 한 번 확신하게 된다. 우리는 이들과 함께 매순간 행복하다. 또 우리는 믿는다. 관계를 통해 우리가 피워내는 꽃이 이곳 사람들의 희망이 되리라는 사실, 그리고 이 아이들과 우리의 상상력이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 가고 있음을. ■

라온아띠는,

KB국민은행이 후원하고, 한국 YMCA전국연맹이 주최하는 대학 생해외봉사단입니다. 아시아 지역 사회와의 구체적인 과제와 직접적으로 만나는 연대활동을 통해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지속가능한 아시아를 꿈꾸며 말레이시아, 베트남, 스리랑카, 캄보디아, 태국, 필리핀 6개국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입니다. 순 우리말로 '좋은 친구들'이란 뜻인 '라온아띠'는 2010년 5월 17일~6월 16일 4기 단원을 모집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www.raonatti.org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